

# 때로는 도발적인 한 여성시인의 정직성과 건강함

최영미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

시집이 십만권 넘게 팔렸다는 것은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매우 주목되는 일이다. 더구나 그 내용이 상당한 토론의 여지가 있어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시인이 기존의 사고를 용감히 깨트린 것은 음모의 동참자로 느끼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일까?

눈에 보이는 것 모두가 우리의 예상을 벗어 나지 않고 있다. 화랑에 걸린 수 많은 화가들이 만들어낸 작품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3초라는 통계도, 너무 빠른 스토리가 보여주는 일상의 풍경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뭇 짐새로운게 없나 하는 기대는 그런 기다림을 버린 뒤에야 슬그머니 나타난다.

최영미는 여성스런 핑크빛 장미냄새를 풍기지도 않고, 차라리 도발적이다 싶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것이 아름답다”는 사실에서 보면, 우리 기준의 도덕으로 시의 자유로움을 칼질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예기치 않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 한동안 범람했던 소녀 취향적 시와는 다른 것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층의 연령을 한층 끌어 올린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최영미의 시는 칭찬 받아야 한다. 물론 미시족을 내세우는 시대 상황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가볍고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장점과 아울러 새로운 개성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잠재 시인으로 그 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익숙한 것에 대한 평안함을 깨는 변혁을, 우리는 두려워 하면서 동시에 기대를 갖는다. 이 이중적인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남도땅 냄새 물씬 풍기는 미루나무 같은 시인 김용택의 평을 보자.

“그의 시에서는 또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은 자기와의 싸움이 길게 배어 있다. 무차별하게 자기를 욕하고 상대를 욕한다. 솔직한 것이다. 이 좌충우돌의 사투가 한편한편의 시에서 웅크리는 우리들의 정곡을 찌른다.”

최영미의 시에 대한 김용택의 시평은 다수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어쩌면 그가 배운 미술 사학이, 그의 시에 추상화 같은 영향을 끼친 느낌이 든다. 그러나 그의 시는 방랑자로서의 불안함과 산만함이 사방에서 묻어난다. 그러기에 그는 너무 젊고 어쩌면 그것이 특권일 수 있겠지만, 다음의 그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시를 떠났던 사람들을 시로 돌아오게 한 것

은 이런 논쟁 틈에서도 그의 공이다.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말탄 기사 대신, 말탄 숙녀가 나타나 그가 지나온 짧지만 변화 많은 세월을 재미있게 보여 줌으로써, 보이지 않는 시의 화폭을 펼친 것이다.

여기서 그의 시에 대한 난해한 평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리라. 그의 서른 잔치는 끝났는지 몰라도 그를 사랑하는 많은 독자들은, 그가 ‘말’을 치료하고 ‘상치’를 감싼 후에 싸워서 늘 이기는 장수가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는 한번 보여주고 사라지기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큰 부담으로 그를 더욱 지치게 할지라도, 세상은 더럽도록 아름답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 한명철

충북 제천시 중앙로 1가 74 제천축협중부지소

## 공지영 지음 「인간에 대한 예의」

살아가면서 지나온 자기 삶의 한순간에 지나치게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우리중에 얼마나 될까. 세상에 뛰어난 그 삶 어느 한부분이라도 스스로의 어깨에 ‘책임’을 지워본 사람이라면 작가 공지영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예의바름, 인간에 대한 예의를.

우리는 지나간 한 시대를 참으로 겸허하게 살아 온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낭만은 사치했고, 일상은 영원보다 소중했던 시절. 사람을 사랑하는 일마저 그 예의바름으로 인해 금욕적이었던 시절에도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었다.

작가 공지영은 「인간에 대한 예의」를 통해, 그렇게 수도사 같이 청렴했던 한 시대를 사랑하며 살아왔던 고백을 마치 수녀처럼 정갈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것은 일기 같기도 하고, 지나버린 친구 앞에서 수다스럽게 떠들어대는 동네 아주머니의 푸념 같기도 하고, 너무나 솔직하고 담백해서 차라리 고해성사 같기도 한 조그만 속삭임이다. 살아 있으면 그들은 뭐할까 싶은 회한에 빠져 들고만 싶을지도 모르는, 살아 펄펄 뛰던 ‘고등어’ 같던 등푸른 젊음을 지금은 쓴웃음과 가슴 패이는 고통으로 삭히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광고 문안이 화려한 화려한 잡지이기보다 조출하고 인쇄냄새 덕지덕지 나는 신문처럼,

그녀의 글은 사실적이고 담담하다. 일기해보적은 신문의 한 귀퉁이 글처럼 일상적이고 건조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맑던 80년을 살아온 사람들의 가슴이다. 열무씩 같은 슬픔으로 몽게몽게 피어 올랐던 「인간에 대한 예의」는 그녀와 우리의 예의바름으로 인해 조심스러워졌고, 폭풍같은 80년대의 젊은 날을 살아온 사람들의 어눌함처럼 다가온다.

“약삭빠르게 일찍 빠져나온 우리들만 이렇게 무사하군요.”

이처럼 그녀가 보여주는 짧은 이야기들은 길이와 관계없이 긴 여운을 남긴다. 작가는 난데없이 94년 여름에 이르러 80년대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하였든 약삭빠르게, 무사히 빠져나온 그때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녀처럼 가슴 무겁게 말하는 이도 드물다. 사진첩에 꽂힌 한장의 흑백 사진처럼 화석이 되어버린 한 시대를 이렇게 꼼꼼하게 자신의 사랑으로 정성스레 다듬어 놓은 작가 공지영은 아마도 누군가에게 웃으며 자신있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기, 시대와 역사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켰던 한 사람이 있다.”

## 성상희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1동 117-21 24동 8반

## 「새들은 저마다 제 이름을 ...」

이 소설은 국민일보사에서 주최한 ‘1억원 고료 현상 문예’에서 당당히 대상을 차지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소설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그 실상을 드러내고 우리나라에서는 문명정부가 들어선 후에 등장한 운동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이 계통의 소설들은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많이 다루었으나 이 소설은 그 갈등 중에서도 주인공들의 사랑과 우정을 감성적으로 그렸다.

이데올로기의 갈등은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이나 제삼자역으로 지내던 사람들에게겐 막연하게 느껴진다. 이 책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운동권 내용을 담은 만큼 그 내용이 딱딱하거나 사상을 주장하지 않고, 그 내용들을 주축으로 하여 성격과 사상, 환경 그리고 이념이 다른 4명의 주인공들을 내세워 각기 다른 시선으로 서로를 지켜 보면서 내면의 생각을 서술하듯

써나간다.

그리고 비록 친구의 죽음으로 다시 만남이 이어졌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남은 친구와 연인들의 사랑은 허구적이지 않고 진솔하다. 사랑과 이념,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인간의 속성인 따뜻한 정으로 이어지는 김시현과 민형조, 남녀사이의 우정을 표본으로 보여주는 구운형과 진은혜 그리고 사랑이란 칼로 자르듯 확연히 구분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민형조와 진은혜, 자기신념과 자기애, 그리고 더불어 살고자 몸부림 친 최민화, 어쩌면 이 모든 주인공들의 성격과 생각들은 우리 인간 속에 조금씩 내재해 있는 여러 모습이 아닐까?

이 책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나름대로의 다른 삶의 방식 그리고 현대인들의 정신적 피로감을 서술하고 있다. 그로 인해 주인공의 정신적 치유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명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기에 제시된 명상은 “복잡한 생각은 생각속에 묻어 버리자”는 현실 도피감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이 나무는 여기서 살아도, 어느 집 정원에서 살아도 늘 진달래야. 너도 어디서 살든 그저 진은혜일 뿐이야. 그 이상 무엇이 되려고 해선 안돼, 될 수도 없고” 주인공 진은혜의 이 말은 그 명상처럼 현실도피와 패배주의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 주인공도 자기의 어쩔 수 없는 결혼으로 패배주의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인식하고 어느 상황 이든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의 마지막에 여자의 일생을 상기시키는 결혼을 패배주의로 인정하게 된다는 게 아쉽다.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80년대를 기존의 소설과는 다르게 인식한 점에서 신선한 느낌을 갖게 한 소설이었다.

## 김미나

경북 봉화군 봉화읍 포저3리 195번지

##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수많은 저작물에서 주제를 찾아낸다면 사랑이란 주제가 단연코 수위를 차지할 것이다. ‘사랑’이란 주제는 시대성과 공간성을 뛰어넘어 재창될 수 있는 묘약이기 때문이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문고판 정도의 분량과 세련되게 디자인 된

# '94 프랑크푸르트 서적박람회

세계 유수의 출판관련 박람회를 엄선하여 참관 알선 해드리고 있는 (주)수진여행사에서는 올해로 46회째를 맞는 '94 프랑크푸르트 서적 박람회에 참관을 원하시는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 ◆전시회 개요

기 간	1994년 10월 05일~10월 10일(6일간)
장 소	MESSEGELAENDE(124,676 m <sup>2</sup> )
전 시 주 최	FRANKFURTER BUCHMESSE
전 시 품 목	각종 서적류 전반, 정기간행물, 지도, 전자출판
특 성	• 세계 최대의 국제 상업 도서전 • 국제출판협회 회의 등 출판관련 회의가 기간중 개최 됨 • BUSINESS 전문 전시회
참가업체수	8,292업체 참가('93년)

## ◆참관기간

- 제1안) 1994년 10월 04일~10월 09일(5박6일)
- 제2안) 1994년 10월 04일~10월 11일(7박8일)

## ◆참관경비

- 제1안) 1,550,000원
- 제2안) 1,850,000원

## ◆신청 및 접수

- 신청서의 신청금(200,000원)을 (주)수진여행사에 직접 또는 온라인 입금
- 국민은행 : 754-01-0006-429 예금주 : (주)수진여행사

## ◆참관일정

코스 (기간)	제1안 (10/4~10/9)	제2안 (10/4~10/11)
제1일 (화)	서울출발(13:00) 프랑크푸르트 도착	1안 동일
제2~4일 (수~금)	전일 박람회 참관 ('94 FRANKFURT BOOK FAIR)	1안 동일
제5일 (토)	마인즈 인쇄박물관 관람 괴테생가 등 관광 프랑크푸르트 출발/서울행	1안 동일 프랑크푸르트 출발/아테네 도착
제6일 (일)	서울 도착후 해산 (16:35)	전일 고대 유적지 답사
제7일 (일)		오전: 고대 유적지 답사 오후: 아테네 출발/파리경유
제8일 (화)		서울 도착 후 해산(17:30)

## ◆신청마감

- 9월 15일까지

## ※여행조건

- 왕복항공료, 숙박비(2인1실), 현지 식사비(박람회 당일 중식 제외) 여행지 보험료, 전시장 입장료, 현지 교통비, 관광 등
- 항공권만 이용시 880,000원 입니다. (서울/프랑크푸르트/서울)

## (株)輪進旅行社 해외전시사업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1-8(비바체B/D 2층)

TEL : (02)501-3443 FAX : (02)501-2965

정장본에 끌려다거나, 전파를 타고 전해들던 광고문안에 한번쯤 귀 기울인 사람이라면 쉽게 눈길이 갈만한 책이다.

우선 명심해야 할 것은 만일 이 책을 조금이라도 더 가치있게 느끼고 싶다면 앞서 말했듯이 따스한 가슴으로 읽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인생이 어느 정도는 관성화되어 버린 중년 이후의 시기, 어떤 이는 안정감이라는 겉껍질에 안주해 버리기도 하는 지리하고 건조한 생활이다.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이런 생활 속에서 깨어나게 한다.

정열적인 이탈리아인의 피를 가진 재향군인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 '아이오'와 한 농가 여인 '프렌체스카', 세상에 대한 진정어린 걱정을 할 줄 알고 자유를 추구하는 사진작가 '로버트 키키에이드'는 무미건조한 일상의 안주에서 벗어난 모험을 택해본 것이다. 명백한 불륜이라고 우린 말한다. 불륜을 보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추하게 느껴지지않음은 구성 자체에서 오는 간결함에 있다. 그녀가 겪었던 사소한 이야기들은 과감히 삭제되고 간결하고 강한 이미지만을 주고 있다.

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과 규칙들 속에 맞추어 넣고 생각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와 같이 소설적인 만남이 이뤄져 자신도 모르게 강한 감정의 움직임임을 느낄 때가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 신차연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90-152

## 신경숙 지음 「깊은 슬픔」

출판된 많은 문학작품 중에서 독자는 선택의 다양성과 국한성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 신간이라는 특정 범위 안에서 몇가지 요인에 의해 도서를 채택하여 읽게 된다는 면에서 보통 베스트 셀러 목록을 참조하게 된다.

여성적인 섬세한 문체와 논리적인 구성전개로 인간의 내면세계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경숙 장편소설 「깊은 슬픔」은 언급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보통 제목 자체에서 그 책의 분위기 및 내

용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깊은 슬픔'의 '슬픔'은 꼭 깊은 곳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작가는 '깊은'이란 수식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슬픔을 미리 인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주인공 '은서'를 통해 전개되는 '완', '세'와의 풀리지 않는 관계는 개인의 감정인 그리움을 독자에게 매개시키는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

사건위주의 보통의 소설과는 달리 「깊은 슬픔」은 복잡한 사건전개가 아닌 심리위주로 작품을 구성하고 있어 자칫 지루함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과거 지향적인 시점에서 그리움을 원천으로 작품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신경숙 특유의 필치로서 논리성을 상실하지 않음은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설속의 소설은 그 상황을 더욱 사실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해답 없는 인식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나를 바라봤던 사람은 다른 곳을 보고, 나 또한 내가 바라봤던 사람을 버리고 다른 곳을 보고, 나를 보지 않던 사람은 나를 보지” 이 부분에서 독자는 한층 '깊은 슬픔'에 동참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효용론적인 입장은 크게 부각되어 많은 이의 손길이 닿게 되는 것이다.

논리적인 비약을 초래할 수 있는 긴박한 사건전환의 소설과는 달리 이 소설은 인간존재의 그리움과 결핍을 기저구조로 드러내고 있으며, 가벼운 터치로 일상적인 소재를 특이하게 그림으로써 사건 아닌 사건을 서서히 경험하게 하고 있다.

내용적인 특징과 마찬가지로 장편소설의 장르론적 속성의 취약점은 편집 및 배열에 의한 구성적인 효과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 작품 또한 소재목 중심으로 작품을 전개하면서 크게는 계절적인 흐름으로 나누어 주인공 '은서'를 둘러싼 주변 세계를 포착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자세한 내용의 언급 대신에 작품의 구조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지만 일반 독자들은 작품을 통해 확실하고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아 자신들의 지표로 삼고자 하는 욕망구조를 암암리에 지니게 된다.

## 이재숙

경기도 오산시 결동 534 대우 APT 105동 1401호